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보고서

-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

작성일자 : 2012. 07. 24



1. 평가 개요

평가 명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 평가
평가 기간	2012년 06월 27일 ~ 2012년 07월 08일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43개 웹사이트
평가 도구	Explorer, Firefox, Chrome, wezip
평가 목적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의 지나친 우려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한 정보 차단 현상을 짚어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평가 대상

NO	기관명	NO	기관명
1	청와대	2	환경부
3	감사원	4	고용노동부
5	국가정보원	5	여성가족부
7	방송통신위원회	8	국토해양부
9	국무총리실	10	국세청
11	특임장관실	12	관세청
13	법제처	14	조달청
15	국가보훈처	16	통계청
17	공정거래위원회	18	대검찰청
19	금융위원회	20	병무청
21	국민권익위원회	22	방위사업청
23	기획재정부	24	경찰청
25	교육과학기술부	26	소방방재청
27	외교통상부	28	문화재청
29	통일부	30	농촌진흥청
31	법무부	32	산림청
33	국방부	34	중소기업청
36	행정안전부	36	식품의약품안전청
37	문화체육관광부	38	기상청
39	농림수산식품부	40	해양경찰청
41	지식경제부	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	보건복지부		

2. 평가 방법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검색 접근성) 및 정보 차단 방법론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웹발전 연구소 연구원들이 중앙행정기관 43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 기준 : 과업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를 추출하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
- 평가 : 아래 네 가지 지표를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 점수를 반영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세부 평가 방법

1. Robots.txt blocking (40점)

- 구체적 차단 기능 : 사이트 내 검색 로봇을 차단하여 외부 검색 사이트에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함
- 적용 시 현상 : 외부 검색 사이트에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였을 경우 색인되지 못하여 기관의 상세 정보를 검색했을 경우 접근에 어려움이 생김.
- 평가 방법 : 웹브라우저에 **http://중앙행정기관url/robots.txt**로 접속하여 **robot**을 **user-agent**로 인식하여 페이지를 **disallow** 처리 하는지 확인.

2. Noindex / nofollow blocking (20점)

- 구체적 차단 기능 : 페이지 별 meta tag에 noindex,nofollow를 설정하여 페이지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
- 적용 시 현상 : 외부 검색 사이트에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였을 경우 색인되지 못하여 기관의 상세 정보를 검색했을 경우 접근에 어려움이 생김.
- 평가 방법 : 중앙행정기관 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소스를 확인하여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nofollow"/>` 존재 여부 확인

3. Redirecting to install ActiveX and Java (20점)

- 구체적 차단 기능 : 모든 정보를 ActiveX 또는 Java 링크로 실행하여 외부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가?
- 적용 시 현상 : 정보가 ActiveX에 담겨있어 Robots.txt blocking, Noindex / nofollow blocking과 같이 외부 검색사이트에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음.
또한, 중요 정보가 ActiveX에 담겨 있어 브라우저,디바이스의 사용 제한이 생김.
- 평가 방법 : Explorer에서 기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ActiveX 플러그인 설치여부 확인

4. JavaScript errors (20점)

- 구체적 차단 기능 : 자바스크립트 오류로 인하여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가?
- 적용 시 현상 : 사이트 품질 저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생김.
- 평가 방법 : Firefox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바스크립트 오류를 확인

3. 평가 결과

순 위	부처명	웹개방성 지수	등급
1	기획재정부	96	A(우수)
	행정안전부	96	
	통계청	96	
	산림청	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6	
6	국가보훈처	92	
	외교통상부	92	
	병무청	92	
9	국가정보원	88	B(양호)
10	방송통신위원회	84	
	중소기업청	84	
	식품의약품안전청	84	
13	국무총리실	80	
	기상청	80	
	해양경찰청	80	
16	국민권익위원회	76	C(보통)
	통일부	76	
	농림수산식품부	76	
	지식경제부	76	
	국토해양부	76	
	국세청	76	
22	특임장관실	72	D(미흡)
23	법제처	68	
	문화체육관광부	68	
	농촌진흥청	68	
	청와대	64	
26	금융위원회	64	
	법무부	64	
	대검찰청	64	
30	감사원	8	E(매우 미흡)
	공정거래위원회	8	
	교육과학기술부	8	
	국방부	8	
	보건복지부	8	
	환경부	8	
	고용노동부	8	

30	여성가족부	8
	관세청	8
	조달청	8
	방위사업청	8
	경찰청	8
	소방방재청	8
	문화재청	8

4. 평가 총평

43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웹 개방성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 이들 5개 기관은 robots.txt, Noindex / nofollow blocking, Redirecting to install ActiveX and Java, JavaScript errors의 개방성 지수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의 robots 접속을 허용하여 외부 검색사이트에서도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Allow 설정하고 페이지 구성 시 meta contents를 Follow 처리하여 외부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등 외부에서도 기관의 공공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정보에 대한 습득과 접근성을 높였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우수 평가를 받은 5개 기관은 이러한 정보의 개방으로 사용자에게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공정하였다. 아쉬운 점으로는 우수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모두 평가 당시 1~2 페이지에서 Java-Script errors가 발생하여 사이트의 이용의 불편이 있었다. 기관의 공공정보를 외부로 모두 공개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의 브라우저 등의 이용환경을 고려한 구축으로 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고려하고 사이트 품질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수의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양호의 등급을 받은 상위 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무총리실,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 로봇의 허용으로 외부 사이트에서 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며, install ActiveX and Java, JavaScript errors의 개방성 평가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각 중요 페이지에 Noindex / nofollow blocking을 처리하여 정보의 개방성에 제한을 둬으로써 양호 등급에 그쳐야 했다.

전체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각각의 세부 평가 중 robots.txt와 Noindex / nofollow blocking에서 각각 보통과 미흡의 평가를 받은 청와대는 국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의 기회를 주고 언제 어디서나 청와대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검색이 되지 못하도록 검색로봇을 차단하고, 각 페이지 내 메타소스로 차단하는 등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저해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Noindex / nofollow blocking과 install ActiveX and Java의 항목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던 금융위원회는 검색 로봇은 허용하였지만 모든 페이지에 META태그를 Noindex / nofollow처리하여 외부 공개를 차단하였고, 모든 페이지에 install ActiveX and Java 권유하여 사용자에게 설치의 불편함을 주거나 브라우저별 사용의 제한으로 불편을 주었다.

이는 개인정보가 담겨야 하는 민원마당 같은 메뉴가 아닌 보도자료, 정책토론, 법령정보 등의 일반 정보가 담긴 공개 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함에도 사이트 내 전페이지를 ActiveX install 처리로 인하여 기본 정보조차 ActiveX에 담겨 외부 검색 사이트 등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준다.

43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기관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 웹 개방 지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반대로 14개의 기관이 검색 로봇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여 정보의 접근을 전면 제한한 곳들도 있었다.

이 기관들 중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빈도수가 높은 경찰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들이 있어 웹 개방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관이 해당 정보를 외부 공개에 대하여 전면 차단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관련 검색어로는 색인이 되지 않기에 검색사이트에서 기관 명을 검색하여 기관으로 개별 접속을 해야하며, 기관 사이트에 접속 후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각 사이트별 메뉴 구조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 무엇보다 현재 기관들의 문제점은 단순한 정보의 차단이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기관의 외부 공개 차단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사이트의 제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